머리말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건강과 관련된 주변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됨에 따라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니드가 현행의 의료서비스에서 질병예방이나 건강증진, 장기간병 및 건강상실로 인한 소득상실의 보상 등으로 다양화·고도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사망률의 감소와 출생율의 감소로 인구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노인장기간병에 대한 국민들의 니드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들의 노인장기간병에 대한 니드는 가족제도의 변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증대 등에서도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족제도가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제도로 변화됨에 따라 "독거노인"과 "노인단독세대"의 급증하고 있으며, 자식세대의 부모세대 부양의식이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확대로 전통적인 가사활동에 대한 여성의 역할이 축소되어 감에 따라 여성이 노인장기간병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듯 국민들의 노인장기간병에 대한 니드가 커지고 있는 데 반해, 공적건강보험제도는 재원조달의 한계로 인해 그러한 니드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건강보험의 공·사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공적건강보험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민영건강보험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과는 별도의 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보조를 같이하여 우리나라의 보험회사들도 민영건강보험 시장의 개척과 상품개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민영건강보험 시장의 큰 축이 될 노인장기간병보험에 대한 시장개척 및 상품개발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노인장기간병보험을 포함한 민영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정부와 보험회사들의 노력이 전개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장기간병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외국의 사례를 참고로 하여 관련 정책과제로

민영장기간병보험시장의 발전방안 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연구니드를 감안하여 보험연구소에서 연구주제를 기획하고 충북대학교의 김기홍 교수에게 연구를 의뢰하여 작성된 것이다. 이 보고서는 선진국의 장기간병보험제도 및 시장상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장기간병관련 인프라와 민영보험시장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토대로 장기간병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정책과제, 공적장기간병보험제도 도입방안, 민영보험시장에 대한 정책방향을 등을 제시하였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적극 활용되어 보험업계가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민영장기간병보험에 대한 시장개척 및 상품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 한다.

보고서 출판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유익한 보고서를 작성하신 김기홍 교수와 이 보고서의 작성에 아낌없는 자문과 조언을 해 주신 외부 전문가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1년 12월

保險開發院

院長 朴性昱